

업계소식

# 건설업계 조찬 간담회 개최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3월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유보와 하도급저가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 강석대 회장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건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건설업계 대표들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건설업계 조찬간담회'를 열고 신정부의 건설산업 정책방향과 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석대 회장은 설비건설업계를 대

표하여 "중소건설업체 육성 발전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를, 정해돈 부회장은 "적정한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급저가심사를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정종환 장관은 강석대 회장의 건의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소식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관련 단체장들과 현대, 대우, GS, 삼성 등 국내 대형 건설사 CEO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다.

건설관련단체에서는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과 정해돈 부회장을 비롯하여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덕흠 전문건설협회 회장, 강교식 해외건설협회 상근 부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장이 참석했고, 민간 건설업체에서는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이상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 건설업계 “건자재 가격 급등 대책과 지방중소업체 육성” 건의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계로부터 가장 많이 나온 건의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과 지방중소업체 육성책이었다.

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건자재값 급등에 따른 수급 애로 해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원가 반영 등의 건의가 많았다”며 “건자재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어떤 형태든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정 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달 10일 조달청이 3월분 자재가격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했고 범정부적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단속도 본격화 되는 등 자재가 상승의 심각성은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 조정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가격을 원가에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재가 폭등의 세부대책으로는 작년 국가계약법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단품 슬라이딩제 활성화와 오는 9월 건축공사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모색된다.

단품슬라이딩제는 특정자재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때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정종환 장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 개선 노력”

건설업계의 건의를 들은 정종환 장관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주를 하면 업계, 나아가 경제도 이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발주제도의 개선을 통한 건설업계의 글로벌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5%, 고용의 8%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선진국형으로 혁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으로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구 등을 건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종환 장관은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며,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조속히 시행하고

## 업계소식

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건설산업 글로벌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앞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건설업계 스스로도 경영혁신에 주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 건설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 유보
- 하도급저가심사 강화
- 철근, 강관 등 자재가격 인상분의 공사원가 반영
- (기본형 건축비 인상,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 SOC민자사업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민자사업 평가 때 기술역량 평가비중 확대, 경제성 있는 사업의 민자전환 활성화)
-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LTV, DTI 등 금융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도급하한제 민간공사 적용,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배점제 도입 등)
- 민간제안사업의 시스템적 관리(민자 제안 반력료 인한 수십억원의 제안비용 손실 방지, 사업 예측 가능성 보장 등)

## 협회안내

# 윈도우비스타제품 인터넷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대한** 설비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서발급시스템”의 제증명 솔루션은 2007년 2월에 출시된 “윈도우비스타”제품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운영체제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윈도우비스타에 대한 제증명 솔루션 업그레이드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업계소식

[설비건설업계의 건의 ①]

# 중소건설업체 육성, 발전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강석대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아침 일찍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클린룸 등 생산설비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설비건설업체 단체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강석대입니다.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시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하시어 전체 일자리의 88%를 만들어 내는 중소기업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국가가 어떻게 지원 할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을 주로 하는 설비업계와 전문건설업체가 중소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물량 부족과 자재가격 급등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정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전문건설업체 운영에 대한 걱정과 자금 부담이 태산 같습니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국가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항상 발표하였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방문하신 곳이 중소기업이고,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건설업의 중소기업이며, 하도급을 위주로 직접시공을 하고 있는, 저희 설비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한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미분양 해소와 급등하고 있는 자재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업계소식

[설비건설업계의 건의 ②]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저가심사 강화 건의

정해돈 /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

설비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성아건설 대표이사 정해돈입니다.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시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먼저 말씀하신 분들께서 건설업계의 어려운 점을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아파트 미분양 등 건설경기 악화와 최저낙찰제 확대로, 건설업계는 외형에 비해서 수익률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은 곧바로 하도급업계 원가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관, 철근 등 강재류는 작년 말 대비 20%이상 급등하여,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설비 및 전문건설업계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건설업계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해소되고 자재 가격이 안정되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해소될 때까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시기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도급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종합과 전문업계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적절한 하도급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저가심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